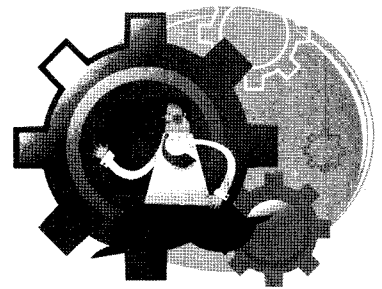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2010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다. 첨단 융합 분야 2개의 펀드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총 결성 예정액은 2,000억원으로서 승수효과는 5배이다.

접수결과(10.3.5)는 11개 펀드운용사 참여, 총 7개 펀드결성계획 접수, 총 펀드결성제안액 7,500억원, 정부출자요청액 1,500억원, 경쟁률 3.5:1이다.

금번 운용사 선정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성장동력 펀드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글

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조성되는 만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선정된 펀드운용사가 제안한 펀드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아주IB투자/솔본벤처투자 컨소시엄은 아주IB의 안정된 운용구조 등 투자역량, 솔본벤처투자의 우수한 투자전문인력의 조합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 '10년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

(단위 : 억원)

구분	투자 대상	선정 운용사	결성 제안액	정부 출자	해외 출자*
첨단융합 (IT융합)	- IT융합, 방송통신융합, 로봇,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아주IB/솔본벤처	1,000	200	-
		린드먼아시아/베넥스	1,000	200	200 (USD 18M)
계			2,000	400	200 (USD 18M)

* 펀드운용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출자의향서 근거

평을 받았다. 린드먼아시아창투/베넥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린드먼아시아의 다년간의 중국투자경험, 베넥스의 글로벌 투자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전략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돋보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선정된 운용사는 150일간의 펀드결성기간을 가지고, 8월 하순까지 펀드결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09년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조성 결과를 보면, 정부재원 1,100억원으로 민간투자 5,400억원을 유도하여 총 6,500억원(운용사 제안액 기준)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총 5개 펀드가 결성완료되었으며 '10년 3월 22일 현재 조성금액은 7,075억원으로 당초 목표를 상회(평균 조성금액: 1,415억원)하였다.

구 분	선정 운용사	펀드 조성액(억원)				비 고
		합계	정부출자	국내 민간	해외 민간	
녹색성장펀드	IBK/AUCTUS	1,490	300	1,190		-
	KDB/대우증권	1,001	200	801		
첨단융합펀드	STIC Investments	3,100	200	1,450	1,450	
	KTB투자증권/KFH	700	200	500		300억원 증액 추진
바이오펀드	KB인베스트먼트/B&C	784	200	500	84	216억원 증액 추진
계		7,075	1,100	4,441	1,534	

